



BUY

목표주가(12M) 370,000원(상향)
현재주가(08월13일) 291,500원

Key Data

KOSPI 지수(pt)	6,813.34
52주최고/최저(원)	497,000/125,300
시가총액(십억원)	58,300.0
시가총액비중(%)	1.04
발행주식수(천주)	200,000.0
60일 평균거래량(천주)	512.4
60일 평균거래대금(십억원)	185
외국인 지분율(%)	23.44
주요주주 지분율(%)	
삼성물산 외 7 인	43.56
신세계 외 1 인	8.07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영업이익(십억원)	3,356	5,526
순이익(십억원)	3,036	4,782
EPS(원)	14,558	25,009
BPS(원)	635,620	698,648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영업이익	2,500	2,580	3,752	10,863
증가율	22.9	3.2	45.4	189.5
보험손익	542	975	974	1,172
순이익	2,107	2,303	3,239	8,078
EPS	11,732	12,824	18,036	44,985
증가율	52.3	9.3	40.6	149.4
PER	8.1	12.3	16.2	6.5
PBR	0.68	0.51	0.38	0.37
ROA	0.75	0.84	1.04	1.93
ROE	5.6	9.2	2.7	6.3
DY	4.7	3.4	2.6	4.3
배당성향	38.4	41.3	41.6	27.8



Analyst 고연수 yeonsookoh@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08월 14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삼성생명 (032830)

2Q26 Re – 2027년 DPS를 바라보며

2026년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9% 하회

2분기 지배주주순이익은 6,899억원으로 컨센서스(7,579억원)를 9.0% 하회했다. 사업비 예산차 악화와 변액보험 관련 투자손실이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이다. (이하 별도 기준)

[보험손익] 보험손익은 2,766억원(YoY -50.0%, QoQ -119.5%) 기록했다. 예상차손익은 인건비 상승 영향으로 YoY 778억원 악화되었으며, 손실부담계약비용은 전년도 기저효과로 1,433억원 악화되었다.

2분기 APE는 QoQ 10%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계약 CSM은 8,689억원(YoY +13.1%, QoQ +2.4%) 기록했다. 신계약 CSM 배수는 12.8배로 YoY 0.6배/QoQ 1.5배 상승했는데, 건강보험과 사망보장 등 전 상품군에 걸쳐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특히 종신보험의 경우 금리 상승에 따른 마진 개선이 생보사 전반에서 나타났다. 다만 CSM 조정은 -5,403억원으로 악화되었는데, 이 중 약 -4,000억원이 계리과정 변경 영향에 기인한다. 이를 제외할 경우 CSM 조정은 경상적인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투자손익] 투자손익은 -990억원(YoY 적전, QoQ 적전) 기록했다. 자회사 및 연결효과가 YoY 62%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및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변액보험 관련 투자손실이 850억원 발생하며 부진했다. 변액보험 관련 투자손실은 2개 분기 연속 -850억원을 기록했다.

[K-ICS] 킥스비율은 208.2%(QoQ -1.6%p), 기본자본비율은 177.2%(QoQ +7.7%p)로 안정적인 수준 유지했다.

삼성생명에 대한 투자의견 BUY 유지, 목표주가 370,000원으로 상향

삼성생명에 대한 투자의견 'BUY' 유지, 목표주가는 370,000원으로 약 23% 상향한다. 12M Fwd BVPS 761,699원에 Target P/B 0.5배(COE 10.0%, 3개년 ROE 3.8%)를 적용해 산출했다. 삼성전자 특별배당의 주주환원 방식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존재하나, 특별배당 재원을 3~5년 걸쳐 분급할 경우 연간 DPS에 5,000원 이상 추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2027년 DPS는 12,000원(YoY +60.0%), 배당수익률 4.1% 수준이다.

또한 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계약 CSM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업계 내 압도적인 전속채널 경쟁력을 바탕으로 상반기 누적 신계약 CSM은 1.7조원(YoY +20.4%)을 달성했으며, 이에 따라 연간 신계약 CSM 목표치인 3.2조원은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도표 1. 삼성생명 2026년 2분기 추정치 상세내역

(단위: 십억원, %)

구분	2Q26P	2Q25	YoY	1Q26	QoQ
보험손익	276.6	553.5	(50.0)	256.5	(119.5)
CSM 상각	366.3	382.6	(4.3)	367.4	(0.3)
RA 상각	88.0	83.8	5.0	87.2	0.9
예실차	(31.8)	45.9	적전	(81.1)	적지
기타	14.3	41.1	(65.2)	(117.0)	흑전
투자손익	(99.0)	90.0	적전	774.1	적전
운용손익	9,679.8	3,035.5	218.9	3,660.3	164.5
보험금융손익	(9,778.8)	(2,945.5)	적지	(2,886.2)	적지
연결 영업이익	622.6	915.4	(32.0)	1,357.8	(54.1)
영업외손익	239.1	94.2	153.8	171.6	39.4
세전이익	861.7	1,009.6	(14.7)	1,529.4	(43.7)
당기순이익	727.4	793.6	(8.3)	1,240.3	(41.4)
지배주주순이익	689.9	758.9	(9.1)	1,203.6	(42.7)

주: 별도 기준, 영업이익부터 연결 기준

자료: 삼성생명, 하나증권

<2Q26 컨퍼런스 콜 요약>

[2026년 상반기 Highlights]

- 지배주주연결순이익 1조 8935억, YoY 35.8% 증가
- 보험손익 안정적 CSM 상각익 확보, 예상치 손실 확대되며 YoY 35.9% 감소
- 사업비예실차는 상반기 중 삼성전자 TAI 소송결과를 반영한 일시적인 퇴직충당금 증가를 비롯한 인건비 상승 영향으로 약 826억 일회성 비용이 반영. 보험금예실차는 의료서비스 이용증가에 따라 손실규모 YoY 확대된 흐름
- 상반기 일회성 요인 등으로 인해 연간 보험손익은 YoY 순증 어려운 상황이나, 연간 신계약 CSM 3조원 꾸준히 확보
- 상품 구조 개선 및 언더라이팅 기준 정교화 등을 통해 초년도 손해율부터 관리 중. 연초대비 초년도 손해를 개선되는중
- 투자손익은 배당수익 증가 및 자회사 이익 호조에 따른 연결 지분법손익 확대로 YoY 큰 폭 증가
- 이익 규모는 작으나 태국과 중국 사업의 이익 증가 속도도 최근 가속화되는 모습
- 금리와 주가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손익 내 변액헤지손실이 다소 증가했음
- 변액 최저 보증 옵션과 관련한 자본 및 손익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해 헷지 실행

[CSM 현황]

- 신계약 CSM은 상반기 1조 7,175억 시현, YoY 20% 증가. 금년 목표 3.2조원대 달성 순조롭게 진행 중
- 수익성과 시장상황 고려해 고수익 건강보험과 종신보험 간 유연한 포트폴리오 전략 구사, 안정적 신계약 CSM 확보를 지속해나갈 것
- 보유CSM에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2분기 신규담보에 대한 보수적 손해를 적용, 산출단위 세분화, 사업비율 물가상승률 및 원가 동인 변경 등 주요 가정변경을 반영. 이에 일회성 CSM 조정이 발생
- 4분기에도 추가 가정변경 예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가이드라인이 6월말 기준으로 반영된 만큼 추가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이를 바탕으로 보유 CSM은 지속적으로 순증 기조 이어나갈 것

[규제 변화]

- GA 수수료 1200%를 적용과 판매수수료 총량 한도 규제 등 제도 강화로 인해 외형 성장보다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이 더 중요해진 환경이 되고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판매채널의 질적 성장을 촉진하고, 사업비 집행구조의 합리화를 통해 건전한 변화 이끌 것으로 예상

[채널 경쟁력]

- 전속 채널은 연초대비 설계사수가 2,100명 순증, 전속 채널 확대에 의한 사업비 증가는 효율적으로 관리중
- GA채널은 고수익 중심 및 순수건강 중심의 포폴 강화, 대형 GA와의 파트너십을 지속 추진 중

[자본건전성]

- 6월말 킥스비율 208%, 기본자본 킥스비율 177%로 안정적 수준 유지중

[해약환급금준비금]

- 26년 2분기 해준금은 3.1조원, 1분기말 1.7조원 대비 1.4조원 증가. 신계약 판매 영향으로 매분기 경상적 약 0.5조원 수준의 해준금 발생 중. 시장 변동성 확대되며 변액 상품의 적립금과 부채평가 차이로 인한 약 0.9조원이 추가 발생
- 이번 해준금 증가는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일시적 영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
- 향후 주가, 금리 등 시장 여건이 안정화될 경우, 해준금 증가 규모는 점차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
- 충분한 배당가능이익 보유하고 있어 해준금 증가가 주주환원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주주환원]

- 경상이익 성장을 이상으로 주주배당 상향한다는 원칙 하에 예측 가능한 배당정책 유지해나갈 계획
- 주주환원 외 신사업 확대 등 잉여자본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해서 추진할 것
- 밸류업 발표 시기는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반영해 내년 주총 전에 발표해야 함.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 신계약 CSM 3.2조 이상, 연간 투자릿수 이상의 손익 성장을 추진해 주주환원목표가 실현되도록 하반기 성과 낼 것

Q&A

1) 한국의 60세 이상의 베이비 부머 세대가 가장 부유한 계층이라는 분석이 많음. 지난 10년 동안 부동산 가치의 상승과 지난 1년 정도 코스피 강세 고려할 때 부유층/은퇴자들의 자산이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 해당 시장이 향후 10년간 얼마나 확대될 것으로 보는지? 이 시장에서 미래 수익 확보를 위한 전략

- 한국의 부는 대부분 60대 이상 소유. 국내 부유층 고객수(10억 이상, 금융자산 기준)는 47만명 정도
- 이 중 삼성생명의 보험 가입자 수는 5만명으로 추산
- 보험회사 중 유일하게 패밀리오피스 조직 통해서 초고액자산가에게 종신보험 외 수익증권, 다양한 신탁 컨설팅 진행 중
- 8개 권역에 FP 센터 통해서 동일한 서비스 제공중
- 삼성생명은 금융자산의 이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특히 종신보험을 통한 부의 이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특히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을 보유한 고객의 사망보험금 총액 60조, 이들을 대상으로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 가입을 활성화하고 있음. 안정적 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지급 가능, 현재 삼성생명은 신탁업을 미래 신사업으로 확장중
-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 AUM 8천억, 올해 1조 돌파 목표. 2위사 AUM 천억 정도로 격차 확대중
- 컨설팅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 중. 종신보험 이외 니즈가 있는 일시납 보험을 적극 판매해서 시장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

2) 한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 이상으로 상승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금리 상승은 해지를 증가와 유동성 관리 부담을 초래. 현재 해지를 추세, 해지를 stress 시나리오에 대한 회사의 관점, 유동성 관리 계획 등 설명. 변액 준비금 기준과 주식시장 변동성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도 않은 만큼 재무 변동성 완화를 위한 회사의 전략

- 금리 상승과 주가 급상승에 따라 해지가 조금 늘어난 것은 사실
- 상반기에 조금 많이 올랐던게 하반기 주식시장 변동성 크게 확대되면서 해지가 조금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
- 기본적으로 자산과 부채의 규모를 고려해서 매일 수지차를 전망하고 각 위기 단계별 해소 유동성자금 기준을 관리/운영중
- 관리 기준상으로는 아직까지 평시 기준이나 2년전부터 1단계 수준으로 유동성 관리해오고 있음
- 외환위기 시 해지가 급상승했던 그런 해지 증가분은 위기상황 시나리오에 반영해서 그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갖고 있는 대책으로 커버 가능한지도 매 분기별 점검 진행 중
- 올해 상반기 유독 극심한 변동성 발생하면서, 헷지 관련 손익 변동성이 확대
- 헷지는 변액보증 옵션에 대한 리스크를 헷지하는 것으로, 이를 안했을 경우 손익 변동성은 1조 이상 커졌을수도
- 해당 리스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헷지를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있음
- 자체적으로 변액헷지 TF 가동중, 헷지수단 다변화도 병행중
- 개인 및 법인 고객에 적합한 상품 개발, 7월부터 판매 중. 앞으로도 지속 판매할 계획

3) 변액헷지 폭 손실 규모는 어느정도? 일반계정단 적자가 더 커보임. 원인 설명

- 변액보증 옵션은 일반계정에서 수수료를 받아서 헷지하는 방식으로 운용됨
- 현재 발생하는 변액헷지 관련 손실은 일반계정에서 발생, 금액은 총 850억 정도

4) 주주환원 정책 업데이트

- 장기 주주환원을 50% 목표, DPS 상향 통해 주주환원 예측 가능성 제고해나갈 것
- 지난 5년간 DPS 연평균 16% 이상 성장, 앞으로도 최소 경상이익 성장을 이상으로 DPS 확대할 예정
- 전자 매각익과 특별배당 관련 코멘트
- 25년도 배당 결정시에도 경상이익 뿐 아니라 지난해 2월에 발생한 전자 매각익도 배당재원에 포함해 결정
- 앞으로도 이 계획에는 변화가 없음

5)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요인 세부내역 설명

- 해준금은 원가 부채와 시가 부채의 차이를 의미. 상품 발행 시 시가부채는 음수를 띄게 되기 때문에 발생함
- 신계약비 집행 수준에 따라서 초과수준이 결정되는데, 삼성생명의 경우 영향도가 크지 않음. 구체적인 수치는 IR팀 통해서 말씀드리겠음
- 경상적으로 분기에 발생하는 수준은 5천억 정도, 현재 2분기 기준 해준금 3.1조 적립
- 변액을 제외한 일반 상품들의 해준금은 아직도 음수인 상황

6) 1200% 를 관련해서 내년도 총량규제 도입. 정부는 제재 수준도 입법한다는 얘기도 나오는 듯. 현재 수준에서 내년도 총량 규제가 도입된다고 보면 어느 정도 신계약비 지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 신계약 집행대비 삼성은 10% 업계는 20%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
- 신계약비 집행으로 인한 판매가 위축되지 않도록 판매시 비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판매 조직의 활동량을 증가시키려고 노력

7) CSM 조정 세부내역 설명, 간편담보 관련 가정 영향도

- 2분기 계리가정 선진화는 크게 손해율과 사업비로 나뉨
- 손해율은 신규담보에 대한 보수적 적용, 산출단위 세분화 등 영향으로 CSM 감소 요인
- 사업비는 물가상승 및 원가 동인 변경의 경우, 물가상승률을 일부 반영했던 상황인지라 CSM 플러스 요인
- 4분기 간편담보 손해를 90% 반영하게 되면, 일부 마이너스 요인 존재
- 당사의 효율들이 개선되는 부분 있어서 영향은 2분기보다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
- 실질적으로 금번 손해를 강화조치가 실제 체력보다 보수적인 측면이 존재. 담보들에 대한 통계를 사용하는 시점이 오면 이 부분이 회복되면서 + 요인이 될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전망

8) 하반기 신계약 배수 전망

- 상반기 신계약 CSM 배수는 13배, 만약에 1월부터 계리가정 선진화 반영되었다면 1.7배 줄어들어서 액 11.3배 되었을 것
- 고수익 건강보험과 일반종신보험 많이 확대할 예정, 안정적 신계약 CSM을 확보할 것
- 7월 이미 계리가정 선진화 반영되었어도, CSM 배수는 13배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상반기 1.7조 신계약 CSM 달성했는데 하반기에도 그 이상 달성할 것

9) KDB 생명 인수 검토 배경 및 향후 M&A 전망

- 자세한 언급은 어려움. 채널 운영, 상품 운영, 자산운용 관점에서 전략적 시너지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검토 이후 미참여
- 국내 생명보험 시장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외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음
- 태국과 중국 사업의 이익 규모가 빠른 속도로 성장중. 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해나갈 것
- 신규 M&A 기회 적극 모색중
- 이머징 마켓인 아시아 시장과 더불어 미국과 같은 선진시장 M&A 기회도 적극 모색 중
- 상반기 외부 컨설팅을 활용해서 해외사업 방향을 수립, 단계적 추진할 계획
- 보험사로서 ALM 최우선으로 하되, 다양한 투자기회 찾는 중

10) 삼성전자 지분가치로 인해 저PBR로 부각될 가능성은?

- 저PBR로 분류될 가능성 희박
- PBR 개선을 위해서 주주환원 점진적 확대하고, 잉여자본 활용한 M&A 및 신사업 확대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

11) 경상이익 성장을 이상으로 주당배당금을 확대해서 주주환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음. 경상이익 단어 정의

-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영업이익
- 일회성 요인들을 제외한 경상이익

추정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단위: 십억원)

	2024	2025	2026F	2027F	2028F
총자산	275,321	309,948	419,368	425,928	434,619
운용자산	213,790	247,285	347,342	353,990	362,482
현금 및 예치금	1,629	1,690	1,854	1,861	1,869
유가증권	175,652	214,240	315,900	322,412	330,674
대출채권	32,595	27,983	26,258	26,387	26,609
부동산	3,915	3,372	3,330	3,330	3,330
비운용자산	5,908	5,196	6,289	6,201	6,400
특별계정자산	55,623	57,467	65,736	65,736	65,736
총부채	250,224	253,531	280,161	279,989	287,515
책임준비금	233,283	230,794	220,778	221,860	223,726
보험계약부채	202,156	200,846	191,784	192,045	193,118
BEL	186,196	184,374	174,947	174,779	175,317
RA	2,969	3,165	3,149	2,999	2,831
CSM	12,902	13,218	13,599	14,177	14,881
기타	0	0	0	0	0
재보험계약부채	592	573	486	486	486
투자계약부채	30,535	29,374	28,509	29,330	30,122
기타부채	16,941	22,737	59,383	58,129	63,789
특별계정부채 등	16,941	22,737	59,383	58,129	63,789
자기자본	25,097	56,417	139,207	145,938	147,103
지배자기자본	25,097	56,417	139,207	145,938	147,103
자본금	100	100	100	100	100
보통주자본금	100	100	100	100	100
신종자본증권	0	0	0	0	0
자본잉여금	6	6	6	6	6
자본조정	(2,110)	(2,110)	(2,110)	(2,110)	(2,11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3,101	43,358	123,556	123,556	123,556
이익잉여금	14,001	15,063	17,655	24,387	25,552
해약환급금준비금	0	832	3,126	3,126	3,126

손익계산서

(단위: 십억원)

	2024	2025	2026F	2027F	2028F
보험손익	542	975	974	1,172	1,309
CSM상각	1,370	1,480	1,419	1,384	1,441
보장성 종신/CI	549	522	494	513	534
보장성 건강	692	819	854	872	907
연금/저축	129	139	144	150	156
RA상각	322	346	351	369	389
예실차	(208)	(161)	(168)	(98)	(104)
보험금	(74)	(234)	(173)	(125)	(127)
사업비	(134)	73	5	27	24
기타	(941)	(690)	(468)	(483)	(417)
투자손익	1,001	692	1,649	8,669	2,044
운용손익	7,158	11,167	19,982	19,995	13,405
보험금융손익	(6,157)	(10,475)	(18,332)	(11,326)	(11,361)
영업이익	2,500	2,580	3,752	10,863	4,428
영업외이익	314	416	598	489	544
세전이익	2,814	2,996	4,350	11,352	4,972
법인세비용	553	545	962	3,122	1,367
실효세율(%)	19.7	18.2	22.1	27.5	27.5
계속사업이익	2,260	2,452	3,388	8,231	3,604
0	0	0	0	0	0
중단사업이익	2,260	2,452	3,388	8,231	3,604
당기순이익	2,107	2,303	3,239	8,078	3,410
지배순이익	2,107	2,303	3,239	8,078	3,410
비지배순이익	153	149	149	152	195
기초 CSM	12,247	12,902	13,218	13,599	14,177
신계약 CSM	3,261	3,059	3,405	3,466	3,566
중단사업이익	468	494	526	541	564
CSM 조정	(1,705)	(1,758)	(2,131)	(2,045)	(1,984)
CSM 상각	(1,370)	(1,480)	(1,419)	(1,384)	(1,441)
기말 CSM	12,902	13,218	13,599	14,177	14,881

주요 투자 지표

	2024	2025	2026F	2027F	2028F
수익성 지표					
CSM 전환배수(배)	84.5	84.6	96.7	98.2	98.6
보장성 종신/CI	66.9	49.1	84.8	87.0	87.1
보장성 건강	138.8	135.8	127.5	128.5	128.6
연금/저축	26.0	14.9	28.2	29.3	29.4
CSM 상각률(%)	10.2	10.4	9.7	9.2	9.2
보장성 종신	4.1	3.7	3.4	3.4	3.4
보장성 건강	5.2	5.7	5.9	5.8	5.8
연금/저축	1.0	1.0	1.0	1.0	1.0
자본적정성					
K-ICS 비율(%)	185	198	208	214	212
지급여력금액	44,336	65,740	130,629	136,877	138,475
지급여력기준금액	23,981	33,208	62,658	63,857	65,389

자료: 하나증권

Valuation

(단위: 십억원)

	2024	2025	2026F	2027F	2028F
주당 지표(원)					
BPS	139,760	309,533	757,795	795,280	801,768
EPS	11,732	12,824	18,036	44,985	18,988
(증가율, %)	52.3	9.3	40.6	149.4	(57.8)
DPS	4,500	5,300	7,500	12,500	12,500
주가 지표(배)					
PBR	0.68	0.51	0.38	0.37	0.36
PER	8.1	12.3	16.2	6.5	15.4
배당수익률(%)	4.7	3.4	2.6	4.3	4.3
배당성장률(%)	38.4	41.3	41.6	27.8	65.8
수익성(%)					
ROE	5.6	9.2	2.7	6.3	2.6
ROA	0.75	0.84	1.04	1.93	0.80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과리율

삼성생명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과리율	
			평균	최고/최저
26.8.14	BUY	370,000		
26.4.29	BUY	302,000	15.62%	64.57%
26.4.27	담당자 변경		-	-
24.3.27	BUY	130,000	-4.36%	98.46%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6년 8월 14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고연수)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고연수)는 2026년 8월 14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 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8.62%	1.38%	0.00%	100%

* 기준일: 2026년 08월 11일